

2014 가을 산사음악회

가을, 山寺는 음악이 있어 행복하다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10월 4일 청량사 경내에서 열린다. 올해는 '꿈이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대중들을 찾아가는다.

산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오색단풍 울긋불긋한 가을산이 유혹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새 산사로 향한다. 선선한 바람 살랑이며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 산사가 아름다운 이유는 음악회가 있기 때문 아닐까? 여름내 지쳤던 몸도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을 산사에서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해보자.

산사음악회의 원주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10월 4일 청량사 경내에서 열린다. '꿈이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

리는 이 행사는 다함께 슬픔을 이겨내고 밝히는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세상을 이루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는 희망과 위로의 노래를 불러 줄 국민 디바 '인순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홍경민', 힘 있는 가창력의 '파야', 팝페라 가수 '정태욱 & 오윤석' 등이 출연한다. 또한 청량사 동근소리 합창단, 동근소리 밴드, 사물놀이 꼬마풍경, 어린이 밴드도 출연해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올해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어루

만져 줄 수 있는 치유의 장이 되고자 한다.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그 꿈을 향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치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천년도량 부안 내소사도 10월 4일 괘불재와 함께하는 가을산사음악회를 갖는다. 현진우, 추가열, 심진 스님, 박강수, 노래사랑 앙상블, 강명진, 들국화 패밀리 등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펼친다. 이에 앞서 진행되는 괘불재에서는 괘불이운, 고불문 낭독, 육법공양, 통천, 음성공양 등이 이어진다. 음악회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도 눈길을 끈다. 휴식형·트레킹·나룻 찾아서 등을 통해 심신을 달래며 가을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5회 괘불재 그리고 미황사음악회는 '미황사의 바다'를 주제로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미황사는 보물1342호 괘불을 마당에 모시고 불교종합문화행사와 산사음악회를 15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행사는 불교 회화와 음악, 사찰음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불교종합예술제로 펼쳐진다. 산사음악회에는 미황사군고단, 이당금(연극인), 박선옥(무용가), 박양희(가수), 이

병채(소리꾼), 신경환(피리연주자), 우수영 강강술래단 등이 출연해 남도의 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것이다.

제12회 부석사 산사음악회 '가을을 그리다'는 사찰음식과 함께 진행되는 이색 행사다. 10월 4일 저녁 6시에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성기숙(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무용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되며 첼로 노병남,

청량사-인순이·파야 등 출연

내소사-괘불재·템플스테이도

미황사-불교종합 문화행사 진행

바이올린 김미소, 클라리넷 이상관 기타 오도훈 등 지역의 연주자들이 출연하고, 난타 비보이 승무 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한 음악회 전 부석사 신도회가 다양한 사찰음식을 준비해 가을의 풍요로움을 전해준다.

전북 익산 심곡사의 떡볶이공연 '2014 가을이 오는 소리'는 9월 20일 오후 7시 낭산면 장암리 심곡사 떡볶이 공연장에서 열린다. 국악, 포크, 콘서트 등 다양한 음악과 만남

수 있는 이번 공연에는 유익종, 김종수, 남궁옥분, 김범룡 등이 출연한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제 6회 대광사 가을빛 산사음악회'를 9월 13일 저녁 6시 30분 경내 특설 무대에서 갖는다. 1부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다문화 합창단·합주단·장기자랑 등이 진행되며 대광사 합창단의 무대도 펼쳐진다. 2부에서는 박상민, 홍경민, 설운도, 한혜진, 전자현악 샹크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오대산 월정사 산사음악회도 10월 18일 오후 6시 월정사 탑앞 마당에서 진행된다. 소지로, 이무마, 서문탁 등이 출연해 가을 산사의 밤을 빛내 줄 것이다. 정혜숙 기자



'제 15회 괘불재 그리고 미황사음악회'는 '미황사의 바다'를 주제로 10월 25일 진행된다.

가을 산사음악회 (날짜순)

주최	일시	내용	연락처
분당 대광사	9월 13일 오후6시30분	박상민, 홍경민, 설운도 한혜진 등	(031)715-3000
익산 심곡사	9월 20일 오후7시	남궁옥분, 김범룡, 유익종 등	(063)855-2001
봉화 청량사	10월 4일 오후7시	인순이, 홍경민, 파야, 정태욱&오윤석 등	(054)672-1446
부안 내소사	10월 4일 오후1시	음악회, 괘불재, 템플스테이	(063)583-7281
서산 부석사	10월 4일 오후6시	음악회, 사찰음식 전시	(041)662-2390
평창 월정사	10월 18일 오후6시	소지로, 이무마, 서문탁 등	(033)339-6800
해남 미황사	10월 25일 오후1시	괘불재, 미황사 군고단 공연 등	(061)533-3521

플라스틱 폐품... 형형색색 만다라로 꽃피네

'최정화-총천연색' 전 10월 19일까지 서울역 광장서

형형색색 플라스틱 폐품이 만다라로 탄생 서울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문화역서울 284(구서울역사)의 2014년 기획전 3 '최정화-총천연색' 전이 10월 19일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는 불자이기도 한 최정화 작가가 시민·관람객들과 함께 만든 '꽃의 만다라'를 완성해 눈길을 끈다. 이는 시민들로부터 1주일 동안 모은 평범한 플라스틱 뚜껑 30여만 개를 거대한 조형물로 완성해낸 작품이다. 평범한 사물이 갖는 색다른 아름다움은 물론 고상한 예술조차 대중들과 함께 하려는 작가의 마음이 담긴 색다른 만다라가 완성된 것이다.

이번 전시는 플라스틱 오브제 조형물들과 갖가지 신기한 최정화식 컬렉션들이 빛어내는 화려한 '총천연색'을 전제 이미지로 보여준다.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세계이기도 한 '꽃'은 생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속(俗)에서도 가장 찬란한 순간의 심미적인 삶(美)을 공감케 하려는 작가의 핵심 작업이다. 아울러 동양적인 가치와 생에 대한 깨달음도 동시에 담아낸다.



최정화 작가는 시민들·관람객들이 모인 플라스틱 뚜껑으로 '꽃의 만다라'를 완성했다.

꽃의 향연, 꽃의 여가, 꽃의 만다라, 꽃의 배, 꽃 숲, 꽃의 뜻 등등 비단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꽃의 형상만이 아니라 삼라만상 모두를 생명으로 피어난 꽃 개념으로 풀어낸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잡화엄식(雜華嚴飾), 곧 온갖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함을 이른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배려하는 이름 모를 꽃들의 웅성거림을 포함해 각기 다른 형형색색의 꽃 개념의 작품들로 화려하게 만개하게 될 것이다. 폐허에서 피어난 꽃들처럼 일상의 평범함과 비무함조차 아름다움으로 개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총천연색'은 완전한 자연 그대로의 색을 뜻한다. 작가는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의 인공 물질문명의 화려함이 실은 가장 자연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최 작가는 "인공과 모조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가장 인공적인 것이 실은 이 시대의 가장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우리 시대 문화의 역설이기도 하지만 자연의 본원적인 원리와 이를 다시 생명으로 재생하려는 작업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02)3407-3500

정혜숙 기자

사계절 연꽃의 일생에 생과 死 담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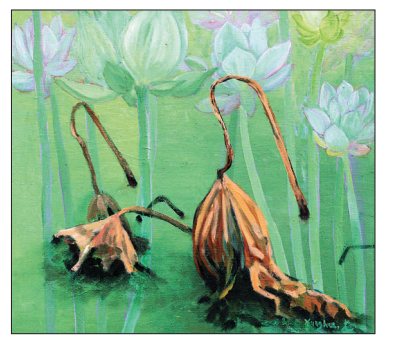
이영희 작가 '緣' 전 ...갤러리 웃다서 9월 13일까지

이영희 작가의 '緣(연)' 전이 9월 13일까지 대전 '갤러리 웃다서'에서 열린다. 연을 주제로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연의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가는다.

사계절을 살아내는 연은 순간순간 변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 그래서 작가는 연꽃을 같은 공간 속 다른 시간들로 묘사해 변화되는 자신을 돌아보며 이를 작품으로 표현한다. 특히 빗자루같이 시들어 버린 겨울 연은 인상적이다. 여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마다 않으니 말이다. 이런 겨울 연은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준다고 작가는 말한다.

이영희 작가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수행자 같은 모습을 겨울 연에서 보았다. 그동안의 작업은 연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내면의 존귀함을 찾아가는 작업이었다"고 전한다.

이영희 작가는 2000년부터 연을 주제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에 첫 개인전을 갖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연의 싱그럽고 고고함을 표현했지만, 연이라는 주제에 천착할수록 세상의 모든 더러움까지 함께 품는 겨울 연에 매료되었다. 이제 작가는 아름다움만을 말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의 연을 매개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



이영희 작가는 겨울 연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는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연꽃이 피면 물속의 지저분한 냄새는 사라지고 향기가 연못에 가득하다. 이 향기는 연(蓮)이 사그라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는 겨울을 지낸 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겨울 연도 여름 연도 모두가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인다. (070)8263-431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파사무용단 '붓다, 일곱 걸음의 꽃'

10월 31일~11월 2일 아르코서... 9월 30일까지 조기 예매

파사무용단 '붓다, 일곱 걸음의 꽃' 레파토리공연이 10월 31일~11월 2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공연을 앞두고 조기 예매 오픈을 실시한다. 아르코예술극장은 9월 30일까지 예매자에 한해 30%의 할

인 혜택을 준다. '붓다, 일곱 걸음의 꽃'은 부처님 일생을 다룬 현대무용극으로 서양악기 및 현대 무대미술을 접목해 대중적 공감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한국공연예술선

터 공동기획' 작품으로 선정됐다.

이 공연은 2012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초연되었으며, 2013년 '부처님 오신 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회 공연된 전석 매진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티켓은 한국공연예술센터(<http://www.koreapac.kr>), 인터파크 (www.interpark.com)에서 예매하며 R석 5만원, S석 3만원이다. 10인 이상 단체할인 30%도 가능하다. (02)2263-4689 정혜숙 기자

마하연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미얀마항공 취항 기념 특가**
- 만달레이/바간/양곤 5일 10월 26일, 27일 (단2회) 879,000원
- 만달레이/바간/헤호/양곤 6일 10월 28일 (단1회) ~~249만원~~ → 169만원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고/시리암 5일 10월 15일
- 양곤/바간/헤호 5일 10월 8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9월 27일, 10월 4일
- 은둔의 나라 라오스**
- 비엔티엔 / 방비엥 / 루앙프라방 5일 10월 15일, 10월 27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완전일주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 인도&네팔 8대 성지
- 중국 4대불산**
- 지장 + 관음도량 6일 11월 25일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25일
- 문수도량 6일
- 구채구 황룡 6일
- 대만 정통순례 5일**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퀴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헤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동사용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차 보험 가입